



인터뷰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서기보 김석민

1. 현 직장 및 하시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직 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사법부에 속한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이릅니다. 등기사무직렬, 법원경위직렬, 속기직렬 등 여러 직렬이 있지만 저는 그 중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 직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사무 직렬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재판부에 소속되어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장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서류 송달 및 재판 조서 작성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중 8~9급은 법원서기보로 실무관이라고 통칭됩니다.

2. 법원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나요?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두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필기시험은 매년 2~3월 경에 실시되며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어, 영어, 한국사 총 8과목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과목수가 많고, 선택과목은 없습니다. 그에 비해 경쟁률은 보통 20:1로 타 공무원 시험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에서 합격 후 면접시험을 치르는데 면접시험에서의 탈락자가 5%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면접시험의 비중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3. 합격을 위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저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부기간을 가지고 2019년 2월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주로 노량진에 위치한 공무원 학원 종합반에서 오전~오후에는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자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초반에 시작할 무렵에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공부시간을 늘려 나중에는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의 공부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이틀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도 공부할 정도로 매우 열심히 했고 학원을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시험준비를 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면접 조를 구성하여 매일 모의면접을 시행했습니다. 면접시험 비중이 적다고들 하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험점수가 높으면 발령을 일찍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441명 중 15등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붙은 해 7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맞춰 공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4.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나 복지수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9급 1호봉 기준 195~2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본봉 50% 정도의 각종 명절 휴가비, 성과 상여금을 합치면 연봉으로는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각종 어학연수 기회나 로스쿨 진학 기회가 있다는 것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어학 및 인문학 온라인 교육, 여러 연수시설 이용 가능 등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용 시 최대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복지포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법학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발령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당시 한 교수님께서 “내가 법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만큼 법원공무원 한명한명이 법원을 대표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 내가 법원의 일개 구성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원을 대표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히, 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업무 과정 중 동료들과 선후배간의 연대의식을 느끼면서 법원에서의 근무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공무원도 여러분이 꿈꿨던 충분히 가치있는 진로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진로가 잘되길 응원하겠습니다.